



목차

기관 및 사업 소개

- 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 8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LIN.K)

2023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개요

- 10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 12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 14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운영

국제문화교류 특별기고

- 18 김상미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특징과 향후의 나아갈 길
- 21 이선철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전통예술 활용을 중심으로
- 24 성무량 지역 국제교류의 쓸모
- 27 이동연 글로벌 시대, 국제문화교류의 시작은 지역에서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사업

- 34 강원 춘천 | 인도 뉴델리 등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식회사 [2023 한국-인도 아티스트 캠프]
- 44 경남 밀양 | 세네갈 다카르
밀양시민예술단 [Glocalization of Dance-밀양 & 세네갈]
- 52 경남 진주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두 번째 이야기]
- 60 경북 고령 | 이탈리아 크레모나
고령문화원 [고령-크레모나 청소년교류 공연 “대가야 환타지아”]
- 68 충북 충주 | 베트남 호치민
(사)세계무술연맹 [충주-호치민시 무술과 문화의 만남]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사업

- 78 경남 함안 | 몽골 울란바토르
풍물패청음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함안·몽골 청년 민속예술인의 국제교류 사업]

국제문화교류 사업 리뷰

- 88 이세은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엿본 지난 6년
2023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후기

부록

- 94 역대 참여 사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ww.kofice.or.kr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03년 설립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류 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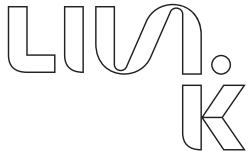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를 비전으로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기업, 전문가와 협력하여 크고 작은 교류활동을 기획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문화교류의 자생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민간 주도 국제교류사업,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기관 간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호문화교류의 해, 코리아 시즌, 수교기념행사 등으로 세계 각국과 협력하며 국가적 의미의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앞으로도 활발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Local Culture for International Exchange with Korea



국제문화교류의 주축이 국가와 공공에서 지역과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최근에는 지역·민간 주도의 교류사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완성도 높은 국제문화교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前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6년간 41개 지자체와 50개 민간단체에 예산 약 30억 원을 지원하여 총 60개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국외의 지역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문화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국제 파트너십 강화와 국제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예술인들은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과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지원’에서는 당해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전국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예산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기획지원’에서는 다음 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의 사업기획력 제고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및 축제, 시각, 지역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회성 지원과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관리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기획지원을 통해 고도화된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 중 우수기획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다음 해 추진지원 공모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추진지원에서도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다음 해 추진지원 공모 참가 자격 및 연속지원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기획지원 → 추진지원 → 추진지원 우수사업 선정 → 연속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사업 고도화 및 지원을 통해 쌍방향 국제교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 간 협업 방식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예산 및 사업관리 지원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치구, 행정시 제외)

지원내용

- 사업예산: 국제교류 사업기획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 최대 7천만 원 이내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전문가 자문: 사업 착수-운영-평가 단계별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제공

지원규모

총 5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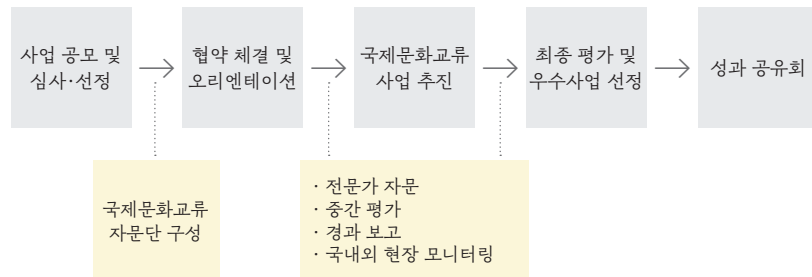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방비 확보
- 진흥원-사업수행단체-지자체 간 3자 협약 체결

사업 참여방법

- 연초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
- 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협력한 사업계획 제출

운영절차



2023년 참여 지역 및 단체

연번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분야	사업명	비고
1	강원 춘천시	남이성교육문화 그룹주식회사	인도 뉴델리 등	전시, 캠프	2023 한국-인도 아티스트 캠프	
2	경남 밀양시	밀양시민예술단	세네갈 다카르	워크숍, 공연(무용)	Glocalization of Dance -밀양 & 세네갈	
3	경남 진주시	진주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워크숍, 패션전시회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두 번째 이야기	‘22-‘23 연속지원
4	경북 고령군	고령문화원	이탈리아 크레모나	공연, 워크숍	고령-크레모나 청소년 교류 공연 《대가가야 환타지아》	
5	충북 충주시	(사)세계무술연맹	베트남 호치민	공연, 워크숍, 전시	충주-호치민시 무술과 문화의 만남	‘22-‘23 연속지원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다음 해 추진 예정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완성도 제고 및 수행단체 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치구, 행정시 제외)

지원내용

- 역량 강화 교육: 지자체 및 수행단체의 국제문화교류 기획·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자문: 사업기획안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자문 제공
- 네트워킹 예산: 우수사업으로 선정 시 다음 해 사업추진 및 협력기관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예산 일부 지원(최대 5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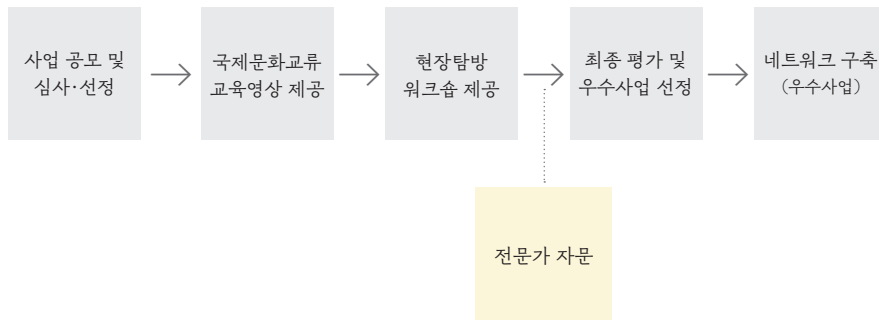
지원규모

총 3개 사업

사업 참여방법

- 이메일(lin.k@kofice.or.kr)을 통한 공모 신청
- 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협력하여 다음 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 제출

운영절차



2023년 참여 지역 및 단체

연번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분야	사업명	비고
1	경남 남해군	남해문화원	포르투갈 파로	레지던시, 전시, 축제	컬렉션-남해, 파로 아트콜라보 "BIG WAVE"	
2	경남 함안군	풍물패청음	몽골 울란바토르	워크숍, 쇼케이스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함안·몽골 청년 민속예술인의 국제교류 사업	'23 우수사업
3	충남 예산군	충남관광문화 재단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오케스트라, 합동공연	Where the Wind Rises: 바람이 불어오는 곳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운영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

운영규모

지역문화·문화축제 기획, 콘텐츠 기획, 문화 브랜딩,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5인

주요활동

• 사업 전 과정의 전문 자문 제공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 방향 설정, 교류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 제시

• 현장 밀착형 제언으로 사업추진 협력

사업 분야별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 완성도 제고

•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 교육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이해도 제고,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전수

•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한 사업평가 후 피드백 제공, 현장 방문 등 대면·비대면 자문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점검

당해 연도 추진사업 자문

공모 심사 및 선정
교류사업 자문
중간·최종 평가

다음 연도 기획사업 자문

공모 심사 및 선정
역량 강화 교육
사업계획안 자문
현장 모니터링
최종 평가

운영절차

1. 자문위원단 섭외

-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 섭외

2. 공모 심사 및 선정

-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안 평가 및 기초지자체·사업수행단체 선정

3. 사업별 자문위원 전담 지정

- 선정사업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전담 지정

4. 밀착 자문

- 사업 착수-운영-모니터링-평가 단계별 전문가 자문 지원
-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 국제교류, 홍보·브랜딩 등 다방면 자문 분야
- 국제문화교류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성과 확대를 위한 교육

5. 사업평가

- 사업 중간·최종 평가 및 지역 국제문화교류 우수사업 사례 발굴

2023년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전담 기관(지역)
1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추진지원 전체
2	김상미	(주)블루버드씨 대표이사	남해문화원(경남 남해군)
3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재)충남문화재단(충남 예산군)
4	성무량	독립 공연기획자	풍물패청음(경남 함안군)

국제문화교류 특별기고

- 18 김상미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특징과 향후의 나아갈 길
- 21 이선철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 전통예술 활용을 중심으로
- 24 성무량 지역 국제교류의 쓸모
- 27 이동연 글로벌 시대, 국제문화교류의 시작은 지역에서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특징과 향후의 나아갈 길

김상미 | (주)블루버드씨 대표

한국국제교류문화진흥원(KOFICE)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본 사업은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자생력 강화를 통해, 일회성 지원과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국제문화교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6년 동안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한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은 지역 국제교류 활성화의 허브 역할을 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종료된다는 소식은 아쉬움을 남기지만, 지역문화의 국제교류 영역은 지역 소멸과 로컬의 생존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년간 이어진 본 사업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국제교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지역문화 가치의 발굴과 교류의 방향

지역문화 국제교류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방향은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창작과 확산을 유도하는 데 작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방적 전파를 넘어,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한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 2022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경남 진주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교류사업은 양국의 전통 문화산업인 실크와 바틱을 현대화하고 대중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통해 양국 문화예술단체는 상호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문화 콘텐츠를 확장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발전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처럼 양국의 문화 콘텐츠가 서로 만나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민간 주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구조

국제문화교류의 주축이 국가와 공공에서 지역과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민간 주도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과 함께 중앙정부 주도 사업의 주요 보완사항으로 언급되는, 지역의 특색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의 고유한 가치가 반영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민간과 지역 주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지역 내의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관광,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력구조와 거버넌스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 지원 프로그램 체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방법론

지역의 자생력을 향상하고 문화 기반을 조성하려면 지역 내의 국제교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 민과 관의 다양한 연대뿐 아니라 각각의 영역 내에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국제교류에 진입하고자 하는 단체마다 국제문화교류 경험치가 다르므로, 실무 역량을 갖춘 국제교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단계별 차등 교육 방식도 필요하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실현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외 파트너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연계하고, 관심 카테고리별로 독립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지역문화 국제교류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이 시도한 다각적인 지원과 시스템은 국제문화교류의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인프라 조성, 교육, 네트워크 개발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범주의 연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지역문화의 독특한 가치는 비로소 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문화로 발현될 것이다.

김 상 미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기업 (주)블루버드씨 대표이사.
연극을 시작으로 축제와 민간 프로덕션에서 제작 피디로 작업하였으며, 시대적 화두를 반영한 다양한 국제공동창작과 국제교류작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는 ‘아트솔루션(Art Solution)’을 축으로 예술의 창의성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판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전통예술 활용을 중심으로

이선철 |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도시 조성, 도시재생 또는 문화도시 등의 각종 촉진 사업이 시행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도 많이 동원되면서 지역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대규모 예산 확보나 인프라 구축, 고용 창출과 전문인력 유입, 지역 홍보나 교류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른바 장소 판촉(place marketing)의 개념이 중요시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성장 동력으로 지역문화나 생태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이나 지역이라는 행정적 개념을 넘어 ‘로컬’의 새로운 가치가 조망되고 공동체성이나 지역다움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다. 이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개발, 마을 만들기,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산업 육성 등의 이슈도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화를 활용한 지역, 또는 마을의 활성화 시도이다. 경제적 발전이 시급했던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 발전의 개념이 지역의 양적 성장이나 능률성 증진을 강조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성숙 단계에 들어서며 점차 지역 형평성이나 국토 균형개발 등도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했고, 특히 환경이나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문화를 활용하거나 문화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지역의 고유성이나 차별성이

곧 그 지역의 경쟁력이며, 이는 지역의 개성을 발현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따라서 문화의 영역도 단순히 역사, 예술, 생활로 구분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생태, 복지, 교육, 산업 등의 분야까지 포함한다. 각 지역마다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지역에서 문화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체 회복의 경향도 나타나, 이러한 측면의 전략과 성과에 대한 공유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측면과 함께 아직은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전문 인프라와 전문인력의 부족, 문화예술 시장의 부재와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문화계가 자립적으로 발전하기는 여전히 요원하다. 문화를 활용하여 동력을 찾고 지역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은 분명 원론적 당위성을 지니지만,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는 실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는 문화의 본질상 그 실체가 추상적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주민의 경험 부재, 성과나 효과의 모호함, 지역의 전문성 결여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제약을 극복하는 것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공유, 활용 방법에 대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 계획, 협업과 의사결정의 합리화 등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아울러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의 활성화 정책과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각종 개발사업이나 공공기관의 이전, 또는 대형 행사 유치 등 물량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현재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교류나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문화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인지도와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한류의 위력도 대단하다. 이런 호기를 맞아 꼭 대중문화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의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동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전통, 예술, 콘텐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며, 일회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무적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이런 국제교류가 중앙 의존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의 자율적 기획과 방안으로 실현되고, 가시적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자원과 소재를 활용하여 각 지역 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이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의 전통예술을 활용한 국제교류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전통으로서의 민속 문화뿐 아니라 전문적인 콘텐츠화가 이루어진 상태나 지역의 일상에 남아 있는 생활문화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천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고유한 전통문화와 문화재,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국가 단위의 문화재는 정부의 몫이라 해도, 지역 단위의 활동은 가장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해당 지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적 자원의 조사와 발굴, 거점 공간의 확보와 조성, 다양한 콘텐츠 기획, 홍보와 마케팅의 활성화, 유지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체계 가동,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활용한 연구, 교육, 컨설팅 등이 꼭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운영체계를 추진하고 적극적인 교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지역 기반 국제교류의 성과는 전적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이루어낸 사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단기간의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이런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발전시키며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선 철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영국 런던대학교(City) 예술정책 &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김덕수패 사물놀이 사무국장 겸 벤처기업 폴리미디어 대표이사 및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2002년 강원도 평창으로 이주하며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감자꽃스튜디오>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연세대, 국민대, 경희사이버대 및 북동연방대(러시아) 등에서 겸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지역 국제교류의 쓸모

성무량 | 독립기획자

지역 국제교류의 시작

처음 멘토링을 의뢰받았을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 굳이 지역문화 국제교류를 지원한다고?’에 가까웠다. 지역 문화예술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게 두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역교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업 컨설팅을 시작하는 첫 미팅에서부터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 참가 단체들의 눈빛과 열망이 너무 강렬해서 어떤 식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할지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제교류 전문가로서 지역(올해는 인구 소멸 지역 중심) 기반의 단체에 어떤 식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영 자신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러웠다. 내가 멘토링을 맡은 단체는 함안에서 활동하는 전통 기반의 젊고 패기 넘치는 팀이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건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추상적인 국제교류 원론을 펼치기에는 그들이 매일 살아가는 지역의 예술 현장이 녹록지 않아 보였고, 팀원들의 파이팅은 이미 너무도 훌륭했다.

우선 직접 내려가서 현실을 보는 것이 급선무였다. 공연 장소는 역에서 멀지 않았지만 띄엄띄엄 있는 교통편 때문에, 실제로는 택시가 유일한 수단이었다. 공연 팀은 7월의 땀별 아래 의상을 풀장착하고 공중돌기를 했다. 멧힌 땀과 거친 숨소리 앞에서 나는 좀 미안해졌다. 공연 이후 자리를 옮겨 ‘멘토링’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분투하는 단체의 생존기를 마냥 듣고만 있는 수준이었다. 이후 내가 한 조언들은 사실 국내에서의 교류에 더 가까운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국내교류와 국제교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때로는 좀 더 먼 지역과 교류하다 보면 어느덧 외국의 어느 지역과 맞닿게 되는 것이다. 국제교류는 언어에 능통한 굉장한 노하우를 가진 단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활동이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이한 시점에서나 예술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도해 볼 만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내가 한 조언들은 그런 이해의 간극을 메우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왜 굳이 ‘중앙’ 정부에서 ‘지역’ 단체의 국제교류를 지원해야 할까?

지역이 존재하는 자리

사실 지역(local)이 소위 ‘중앙’과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국제교류에 접근하면 십중팔구 어설픈 기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과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더군다나 국제교류 인력(기획인력)의 대부분이 서울에 포진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 둘의 상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 기반의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고립감이다. 예술적 이슈에 동시대적으로 접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은 가중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기존의 시스템 속에서 가능한 사업만을 하면서 안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지역 예술의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지역의 국제교류는 지역 예술인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예술적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를 실행한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 보통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몇몇 기획자를 초청해 단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데서 그친다. 양측 모두 충분한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추상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사업의 새로운 터전

그러므로 이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면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나는 지역에서 예술적 갈증을 겪고 있는 단체들에게 숨구멍을 틔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과 별다른 차별성 없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소수의 단체를 중심으로 성과를 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둘째는 서울의 소위 ‘전문가’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단선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두 번의 만남에서 원론적인 국제교류 매뉴얼을 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 단체가 겪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와 중첩되는 부분을 지닌다. 그것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조언을 할 수 있으려면 초기부터 거시적인 사업 설계를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열개를 짜나가야 한다. 반면 기존 지자체에서 해온 국제교류 사업들은 무늬만 다르거나 단순한 교류 형태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오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비전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 단체와 전문가들이 지역 예술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사업 설계에서부터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시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방식과 색깔의 국제교류를 시도하고, 또 실패하는 경험도 하면서 각자의 노하우가 쌓이길 바란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재단이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실패와 성공 사례를 지켜보고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뒤편기를 시작하는 단체에게 마라톤을 주문하는 것은 설부른 기대일 수 있지만, 그들의 패기와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전문가 그룹을 함께 매칭해 보길 바란다. 어려운 여건은 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기회가 될 테니 말이다.

성 무 량

영문학을 전공하고 우연히 공연예술계와 맞닿아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해외팀장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대전예술의전당 기획팀장으로 기관 생활을 마감했다. 최근에는 다수가 아닌 것들이 낼 수 있는 힘에 주목해서 작업 중이다.

특별기고 4

글로벌 시대, 국제문화교류의 시작은 지역에서

이동연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2000년대 후반, 미디어아트와 요람 아츠 일렉트로니카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린츠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다. 암스테르담에서 린츠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나에게 어디에 가는지 물었다. 오스트리아에 간다고 하니 오스트리아 어디로 가느냐고 다시 물었다. 린츠에 간다고 말하니, 자기는 리스본에 간다는 것이었다. 5년 전 유럽의 음악 도시를 연구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로 향하며 헬싱키에서 비행기 환승을 기다릴 때에도 옆에 있던 외국인이 어디에 가는지 물었다. 나는 아이슬란드에 간다고 대답했고, 그 사람은 웃으면서 자기는 베를린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리고 보니 외국에 갈 때 나는 의례적으로 구체적인 해당 도시 대신에 국가 이름을 목적지로 대답한 것 같다. 파리 대신 프랑스, 런던 대신에 영국, 바르셀로나 대신 스페인이라고. 반면 공항에서 만났던 유럽인이나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국가 대신 자신이 사는 도시를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문화와 예술, 개인들의 자유로운 여행이 국경을 가로질러 다양한 도시들과 만나는 이른바 글로벌 시대에 지역은 어느 한 국가의 변방으로 갇혀 있지 않다. 지역은 한 국가에 소속된 도시이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유럽, 동유럽 등 다양한 문화적 권역을 연결하는 탈국적화된 문화의 신경망 안에 포함된다.

요즘 여행객들이 해외의 어느 도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지리적, 문화적, 생태적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축구를 보러 리버풀로, 로큰롤을 들으러 멤피스로, 사막을 체험하러 라바트로, 아프리카 사파리를 체험하러 나이로비로 간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도시 중 하나를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로 매년 선정하여,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지원한다.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멜리나 메르쿠리가 먼저 ‘유럽 문화도시(European City of Culture)’ 사업을 제안했고, 1985년 그리스의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1999년 사업 명칭이 ‘유럽 문화수도’로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아테네, 피렌체,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릴, 탈린, 마르세유 등의 도시가 선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시 대 도시로 연결되는 도시 문화 균형 전략을 꾀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부합하는 도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창의도시를 선정하였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화적 환경과 문화·예술·지식정보산업 등에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도시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목표로 삼는다.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랑거리, 애착이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발전시켜 그것이 새로운 문화에 자극과 투자를 가져오고, 창조적 문화 활동과 혁신적 산업 활동을 연결하여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도시를 꿈꾼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공예 및 민속예술, 문학, 영화, 음악, 디자인, 미디어예술, 음식 등 총 7개의 분야를 두고 있다. 2020년 기준 84개국 246개 도시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이천, 서울, 부산, 전주, 부천, 광주, 통영, 대구, 원주 등이 가입해 있다. 유네스코의 이 프로젝트 역시 전 세계 도시를 창의적 자원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유럽연합의 문화수도 프로젝트,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을 문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오랫동안 국가 수교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 보니 가는 곳도 주로 해당 국가의 수도이고, 축하공연단도 중앙정부의 국립예술단체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의 국제문화교류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 도시 간 국제교류도 대폭 늘어났고, 참여하는 공연예술 단체들도 민간 그룹이나 지방자치 단체 예술단이 중심이 된다. 국제문화교류의 패러다임이 국가 대

국가에서 지역 대 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이 글로컬 시대 새로운 국제교류의 모델을 만들고자 시작한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이 지역의 국제교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민간단체를 해외의 도시와 단체와 연결해 주는 것이 특별한 점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은 국제교류에 대한 기대와 수요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원, 행정, 전문 컨설팅 등에서 체계적인 노하우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진흥원의 이 지원사업은 지역의 그러한 부족함을 메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 고무적이다. 진흥원이 제작한 2021년 결과자료집 서문에 나오는 이 사업의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문화교류의 주축이 국가와 공공에서 지역과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민간 주도의 교류사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완성도 높은 국제문화교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前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지역의 32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예술인들은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이 사업은 최근 국제문화교류의 트렌드가 지역과 민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목하고, 지역 고유의 유·무형 문화자원이 글로컬 시대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사업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도시들이 많다. 2021년에는 [김포시-글렌데일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Borders: Visible/Invisible, 경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영주-하노이 국제문화교류: 선비의 삶],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캘리그래피) 문화 확산], [청주-

네덜란드: 치유의 연회(Healing Performance)]가 대표적이다. 국내의 지역과 세계의 지역, 국내의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와 세계 문화예술인-단체가 다양한 주제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 분권과 문화 고유성의 발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진흥원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아쉽게도 사업이 종료되어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소중한 그동안의 지역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의 다양한 사례를 기록하고 훗날 사업의 지속을 위해 선행 경험을 자료로 제작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이 비록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미래의 글로벌 문화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이자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프로젝트라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이 동 연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에서 문화이론, 예술정책, 공연기획을 가르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주관하는 예술마을프로젝트 총감독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예술@사회》, 《예술과 삶》, 《문화연구의 종말과 생성》, 《문화자본의 시대》, 《예술마을의 탄생》(공저) 등이 있다.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식회사 [2023 한국-인도 아티스트 캠프]



아티스트 캠프에서 이루어진 작품 활동(2023.9.7.~9.13.)

[2023 한국-인도 아티스트 캠프] 사업은 춘천 남이섬교육문화그룹과 인도 간의 문화교류사업이다.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아티스트 캠프는 10인의 한국 작가와 10인의 인도 작가가 참여했으며, 참여 작가들이 양국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추후 활동 시 양국의 문화교류 증진 및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10인의 한국 작가 중 5인을 춘천 지역 작가로 선정하여 이번 문화교류의 성과가 춘천 지역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 작가들은 캠프 기간 중 공동 공간에서의 미술 작업 및 작가 교류 워크숍을 통해 상호 소통하며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총 20개의 개별 작품을 완성하고, 이 작품들을 활용하여 한국과 인도의 주요 도시에서 순회전을 개최하며 양국의 많은 시민에게 한국과 인도 미술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전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캠프 기간 중 총 2회에 걸쳐 국립강원대학교 미술학과 학생 및 강원애니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참여 작가들과 소통하고, 직접 양국의 미술 기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양국 작가들의 작품 이야기와 체험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지역문화 증진 및 국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춘천 강촌 지역에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벽화 타일로 제작하여 부착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했다. 해당 공공미술 작품은 강촌 지역의 주요 길목에 설치되어 강촌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완성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캠프 기간 남이섬에서 개최된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많은 방문객들이 한자리에서 작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준비된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B-boy) 댄스팀이 유명 인도 볼리우드 영화인 《RRR》의 댄스를 커버하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서울을 시작으로 남이섬, 춘천, 대구를 거치며 진행된 국내 순회전에서는 약 8,000여 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아 이번 캠프에서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였다. 많은 방문객들은 짧은 기간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완성되었다는 점과 모든 작가가 각자의 기법으로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작품 곳곳에 양국의 문화적 상징들이 숨겨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번 순회전을 즐겼다. 12월부터는 인도 순회전이 시작되어 조드푸르, 푸네, 첸나이에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교류사업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교류가 양국 관계를 대표하는 문화교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교류의 결실이 참여 작가와 그 주변 구성원들로 확대되어 여행, 교류전, 워크숍 등 또 다른 교류 활동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사업 개요

사업명	2023 한국-인도 아티스트 캠프
분야	미술, 전시
참여 지자체	춘천시
사업수행기관	남이섬교육문화그룹주식회사
교류지역	인도 뉴델리 등
주요 교류기관	10인의 한국 참여 작가, 10인의 인도 참여 작가, 주한인도대사관, SEHER

사업수행기관 소개

남이섬교육문화그룹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춘천 남이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오랜 기간 세계 각국과 문화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활동을 지속해 왔다. 대표적으로 남이섬 세계책나라축제, 국제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나미콩쿠르, 월드뮤직 페스티벌, 사랑-나미나라 인도문화축제, 핀란드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이스쿨스 등 다채로운 사업을 매년 펼치고 있다.

특히 인도와의 문화교류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으며, 2015년부터 매년 함께 사랑-나미나라 인도문화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주한인도대사관을 비롯해, 주한인도대사의 주선으로 2020년 남이섬교육문화그룹과 업무협약사를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 문화기획사 SEHER, 주한인도상공회의소(회원사 자격), 주한인도인공동체(MOU 체결), 인도연구원(대의원 자격)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상호교류하며, 더욱 가치 있는 민간 문화외교 활동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인도는 수천년간 종교, 철학, 미술 등 인류 문화사에 큰 족적을 남겨왔다. 또 현재도 청년층이 대다수인 14억 명의 인구, 한반도 15배 크기의 국토에 기반하여 문화를 비롯해 경제,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는 1973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2015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남이섬교육문화그룹은 춘천의 남이섬에서 2005년 ‘라마찬드란 원화전’ 개최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인도 문화행사를 진행해 왔고, 2023년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양국 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2023 한국-인도 아티스트 캠프를 개최하였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10인의 한국 참여 작가

춘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5인의 작가(김영경, 김예원, 손유선, 이광택, 이승호)와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5인의 작가(박진홍, 송근영, 송동욱, 양순영, 조정은)가 이번 캠프에 참여했다.

• 10인의 인도 참여 작가

인도 현지 공동기획 파트너사 SEHER와 협력하여 인도 전역에서 10인의 작가(Anjum Khan, Binoy Varghese, Farhad Hussain, Janani Shyam, Kiyomi Talaulica, Laishram Meena Devi, Nupur Kundu, Samindranath Majumdar, Tanmoy Samanta, Yogendra Tripathi)를 초청하였다.

• SEHER

우다이푸르 월드뮤직 페스티벌, 아세안-인디아 아티스트캠프, 나마스떼 프랑스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진행했으며, 특히 2010년 미국 오바마 前 대통령의 인도 국민방문 환영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인도의 문화기획사이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개별 작품 활동 (2023.9.7.~9.13.)	캠프 기간 동안 참여 작가들은 공동 공간에서의 작업을 통해 7일간 개별 1개 작품씩을 완성했다.
작가 교류 워크숍 (2023.9.6.~9.13.)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참여 작가들이 양국의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심도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강연자: 송근영 작가, 송동욱 작가, 판소리 음악가 문수현, 요가 강사 카비타, 까딱 무용수 소날리 로이, 강우현 남이섬 부회장, 엄선미 前 박수근미술관장, 구하원 서울대학교 교수

학생 대상 아트 워크숍 (2023.9.8.,9.11.)	강원대학교 미술과 학생 및 강원애니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여 참여 작가들과 소통하고, 직접 미술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트 페스티벌 (2023.9.9.)	참여 작가들과 방문객 간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 제공, 공연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2023.9.7.~9.13.)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타일에 프린트하여, 춘천 강촌 지역에 타일 벽화 거리를 조성했다.
국내 순회전 (2023.9.20.~11.17.)	서울 인사동 마루아트센터, 춘천 남이섬, 춘천 강원대학교 미술관, 대구 계명대학교 극재미술관에서 캠프에서 완성된 작품을 활용한 순회전을 진행하였다.

성과

- 작가별 1개 작품씩 총 20개 미술 작품 완성
- 결과물을 활용한 순회전 4회(서울, 남이섬, 춘천, 대구) 개최
* 추후 순회전 개최 예정: 조드푸르, 푸네, 첸나이
- 20m 폭의 타일 벽화 공공미술 프로젝트 완성
- 도록 1권 제작
- 관련 영상 5건 제작(개막식 영상 1개, 공식 후기 영상 1개, 인터뷰 영상 3개)
- 관련 보도자료 23건 송출

참가자 통계

- 작가 교류 워크숍 진행자: 8명
- 학생 대상 아트워크숍 참여자: 2개 학교 50명
- 캠프 기간 현장 방문객: 약 1,000명
- 아트 페스티벌 현장 방문객: 약 3,000명
- 서울 전시 방문객: 약 1,500명
- 남이섬 전시 방문객: 약 6,000명
- 춘천 전시 방문객: 약 500명
- 대구 전시 방문객: 약 500명

후속 교류

- 조드푸르 Mahila P.G. Mahavidayalya에서의 순회전 (2023.12.11.~12.14.)
- 푸네 Indo-Korean Center에서의 순회전 (2023.12.16.~12.21.)
- 첸나이 Inko Centre에서의 순회전 (2024.1.30.~2.20.)
- Indo-Korean Center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예정 (2023~2024)
-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인도상공회의소, 주한인도인공동체협회, 인도연구원 등 관련 단체들과 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문화사업 추진 예정



2023 한국-인도 아티스트 캠프 개막식 (2023.9.5.)



작품 활동 (2023.9.7.~9.13.)



학생 대상 아트 워크숍(2023.9.8./9.11.)



아트 페스티벌(2023.9.9.)



밀양시민예술단

[Glocalization of Dance-밀양 & 세네갈]

세네갈에 위치한 아프리카 대표 무용기관 에콜 드 사블르와 밀양 시민예술단 간의 전통춤 교류 및 창작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양국의 전통 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공연창작 워크숍을 총 5일 진행하고 시범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3개 이상의 현지 언론과 1개 유럽언론이 참여하여 시범 공연을 취재했을 뿐 아니라 세네갈 내 무용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결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을 듣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귀국 후 아프리카 문화 관련 대학 센터, 학회 등에 사업 성과를 발표하여 공유하고, 밀양 전통춤 공연에서 사업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Glocalization of Dance-밀양 & 세네갈: 대한민국 밀양-세네갈 다카르 워크숍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적용과 확산
분야	워크숍(전통무용) 및 시범 공연(쇼케이스)
참여 지자체	밀양시
사업수행기관	밀양시민예술단
교류지역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
주요 교류기관	에콜 드 사블르(Ecole Des Sables)

사업수행기관 소개

밀양시민예술단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지역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보존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8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매년 지역의 대표 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기 공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극단과 함께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진행하고, 밀양 전통춤의 세계화를 위해 전 세계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류지역 소개

세네갈 다카르는 ‘아프리카의 파리’라 불립니다. 음악, 미술, 무용 등 현대예술 콘텐츠가 가장 풍부한 대표적인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세네갈은 아프리카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무용수 제르멘 아코니(Germaine Acogny)의 출신 국가이기도 하며,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무용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에콜 드 사블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무용가 제르멘 아코니가 설립한 무용 기관으로, 전 아프리카 및 유럽 지역의 무용수들을 대상으로 매년 국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무용수들이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 콘텐츠의 확장과 교류를 통해 꾸준히 창작 작업을 하는 아프리카 대표 무용기관입니다.

• 팔리아(Falia)

아프리카 세네갈의 가장 오래된 출판사이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운영, 홍보하는 문화예술단체입니다. 현지 언론인 및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공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프로그램명(일정)	Glocalization of Dance - 밀양 & 세네갈
워크숍	워크숍(1일차): 밀양 무형문화콘텐츠 워크숍(2일차): 세네갈 무형문화콘텐츠 워크숍(3일차): 창작 안무 워크숍(4일차): 창작 안무 기반 공연 기획 및 연습 워크숍(5일차): 공연 리허설
시범 공연	-〈최초의 풍요사회〉 한국 작품 -〈세네갈 전통춤〉 세네갈 작품 -〈선살풀이〉 한국 작품 -〈Glocalization of Dance〉 한-세네갈 협력 작품(쇼케이스)

성과

- 한-세네갈 무용 교류 기반 마련
- 한-세네갈 협력 작품 창작
- 세네갈 언론 및 무용 관계자 대상 한국 전통춤 공유
- 국내 아프리카 문화 전문기관(경희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 주관으로 아프리카 세미나에서 사업성과 공유
- 밀양 정기 전통춤 공연(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강당) 중 세네갈 작업 영상 상영

참가자 통계

- 워크숍 참여자(무용수) 6명
- 시범공연 관람자 50명(주세네갈 한국대사관 관계자 3명, 세네갈 및 유럽 언론인 5명)
- 유관기관 관계자 실무협의 및 행정지원 8명
- 현지언론 3건, 프랑스 언론 1건

후속 교류

- 밀양시민예술단과 에콜 드 사블르의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추진 중
- 문화동반자 사업 등 연계 프로그램 2024년도 지원 예정
- 밀양시 지원,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세네갈 무용수 초청 추진 중
- 밀양 교육청 지원 세계시민교육 문화 다양성 관련 본 사업 내용 커리큘럼화 추진 중
- 2024년 다카르 비엔날레 협력 공연 추진 중



워크숍



워크숍(세네갈 안무)



워크숍(한-세네갈 협력 안무 리허설)



시범 공연



현지 언론 취재



시범 공연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두 번째 이야기]



진주바틱 소재로 제작한 한복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사업은 진주의 실크와 인도네시아 바틱과의 문화교류 사업이다.

바틱과 진주실크는 전통문화라는 면에서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전통 소재와 디자인의 한계 등으로 현실적인 면에서는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과 지역문화 국제교류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에는 인도네시아의 디자인 IT 기업 바틱프랙탈(Batik Fractal, 공동대표 무하마드 루크만)과 한국의 박선옥 한복 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했다.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양 및 진주 설화 내용을 결합한 새로운 진주바틱 패턴 3개를 최종 개발했다. 그리고 이 공동결과물을 활용한 <진주실크-바틱> 의상을 활용하여 패션전시회를 개최했다. 한국 드라마, 케이팝(K-pop) 등이 인도네시아인들의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는 많은 언론사 등이 크게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진주실크-바틱> 문화교류를 매개로 더욱 다양한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게 되었으며, 진주실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고 인도네시아와 지속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사업을 확대할 것을 확인하였다.

사업 개요

사업명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두 번째 이야기
분야	전시(패션), 워크숍(패턴 개발)
참여 지자체	진주시
사업수행기관	(재)진주문화관광재단
교류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주요 교류기관	바틱 프랙탈, 기로에, KOCC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사업수행기관 소개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며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류지역 소개

인도네시아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바틱이 등재된 것을 계기로 제2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주시 또한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서 2020년 민속·공예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창의산업 중 하나로 진주실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올해도 진주시의 실크와 인도네시아 바틱과의 문화교류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하기 위해 자카르타에서 패션전시회를 개최했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바틱 프랙탈(Batik Fractal)

바틱 프랙탈은 지역의 지혜와 재생 기술을 결합하여 혁신에 종사하며, 인도네시아 전통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로서 무함마드

루크만(Muhammad Lukman)이 공동 설립자이다. 바틱 프랙탈은 프랙탈 기법을 사용하여 바틱 모티프를 디자인하는 jBatik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독창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역의 많은 장인과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바틱을 문화자산으로 보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 기로에(GUIROE)

사업에 참여한 한국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의 디자인은 전통 복식과 그 기저에 깔린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올곧은 정신과 세련미를 21세기 패션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박선옥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기로에’의 남성 한복 정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2019 우수문화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는 콘텐츠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최대의 전략거점으로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016년 10월 신설되었으며,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시 비즈니스 매칭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진주 바틱 패턴 개발 워크숍 (2023.6.30.)	한국 및 인도네시아 문양과 진주의 설화 내용을 결합한 새로운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총 3개 개발했으며, 최종 패턴과 바틱염색을 진행할 진주실크를 결정하고 색상도 확정하였다. 또한 패션전시회 개최를 위한 소셜미디어 스토리텔링 및 전략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두 번째 이야기 패션전시회 (2023.11.28.~11.29.)	최종적으로 진주실크에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패턴으로 바틱염색을 진행하여 원단을 완성했다. 이 진주 바틱(JinjuBatik) 원단을 활용하여 기로에의 박선옥 디자이너가 의상을 5벌 제작했고, 작년에 제작한 의상 4벌을 더해 총 9벌을 선보였다. 패션전시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OREA 360 컬처존에서 진행되었으며 케이팝에 관심이 많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과 관계자 등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성과

- 진주 설화 및 한국, 인도네시아 문양을 활용한 새로운 진주바틱 패턴 3개 개발
- 작년 우수사업 선정과 인도네시아-한국 수교 50주년 기념 후속 교류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간 장기적 교류 협력을 위한 발판 마련
- ‘진주 바틱’ 패턴 개발 워크숍 및 패션전시회 개최
- 인도네시아 패션협의회 동자바주 말랑지부-진주문화관광재단 업무협약(LOI) 체결(2023.5.31.)

참가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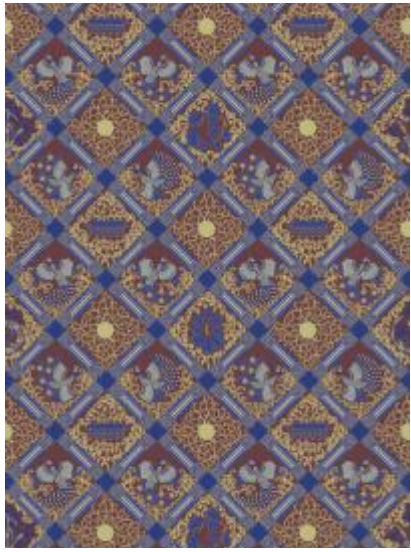
- 패션전시회 개최식 참가자 30명(개최 시각 오전 11시 방문객 60명)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등 주요 관계자 25명 정도 참여
- 패션전시회 관람자 총 516명
- 워크숍 참가자 7명

후속 교류

- 인도네시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영상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파급 예정
- 진주실크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교류 자리 마련 예정



패턴 개발 워크숍 진행(2023.6.30.)



패턴 개발: 첫 번째 디자인 확정



패턴 개발: 두 번째 디자인 확정



패턴 개발: 세 번째 디자인 확정



인도네시아 바틱 염색 진행



패션전시회 개최(2023.11.28.~11.29.)

고령문화원

[고령-크레모나 청소년 교류 공연 《대가야 환타지아》]



《대가야환타지아》 공연, 바이올린 박물관 아르베디홀

1. 사업 목적

고령의 문화유산 가야금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연주단체 우륵가야금연주단과 고령청소년오케스트라를 융합하여 새로운 글로벌 공연단체와 창조적 공연 콘텐츠를 육성한다. 또한 자매도시 간의 예술 교류를 통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전통음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양국 예술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실현하도록 한다.

2. 사업 내용

2023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고령-크레모나 청소년 교류 공연 《대가야 환타지아》를 주행사로 크레모나시와 볼로냐시 등 두 도시에서 주 공연을 하였다. 또 크레모나시에서는 로마 광장, 두오모 광장에서 2회의 거리 공연(버스킹)과 가야금/바이올린 제작과정 워크숍 및 체험 캠프를 실시하는 등 총 2회의 메인 공연과 2회의 거리 공연, 1회의 워크숍과 1회의 청소년 교류캠프를 개최하였다.

3. 사업 결과

모든 공연과 행사는 현지 유수의 청소년 공연단 및 학교들과 협연 및 합동으로 이루어졌고, 참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목표보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거두었다. 또한 크레모나시와 볼로냐시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행사 참가자와 관람객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사업의 목적은 양 도시 청소년들의 교류와 이를 통한 미래 세대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동서양 악기와 음악의 어울림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었다. 실제로 두 도시 간 청소년 음악가들의 협력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는 자긍심이 참가자들의 가슴에 싹텄으며, 양 도시 관계자들도 이 콘텐츠의 우수성과 발전성에 공감하여 계속 교류를 이어나가며 발전시키자고 약속하였다. 특히 가야금과 서양음악의 합주를 통해 <고령아리랑>이란 음악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연주가 끝난 뒤에도 몇 분간 기립박수를 보냈으며, 결국 앙코르 연주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공연은 끝을 맺었다.

사업 개요

사업명	고령-크레모나 청소년 교류 공연 《대가야 환타지아》
분야	공연 및 워크숍
참여 지자체	고령군
사업수행기관	고령문화원
교류지역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볼로냐시
주요 교류기관	크레모나시, 크레모나 상공회의소, 크레모나 몬테베르디 음악원, 크레모나 국제바이올린학교, 크레모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비마이뮤직, 볼로냐대학교, 주밀라노 한국 총영사관

사업수행기관 소개

고령문화원은 1974년 설립된 이래 고령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발굴하고, 고령군의 문화예술 진흥은 물론 전통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과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고령문화원에 속한 24개의 문화단체들은 인근 시·군과 해외의 축제에 초청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우륵과 가야금의 고장이라는 역사성에 바탕을 둔 가야금 연주단(청소년, 성인 가야금, 어르신 가야금, 군립가야금)은 해외 공연을 통해 동·서양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령 우륵청소년 가야금연주단은 고령을 해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청소년 공연단체로서 자매도시인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미국 메릴랜드주와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크레모나시는 바이올린의 도시로서 같은 현악기인 가야금의 도시 고령군과 2014년 자매결연을 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문화예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올린과 가야금이라는 악기를 통한 음악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동서양 뮤직페스티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교류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의 유행으로 끊어진 교류를 재개하고 두 도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악 교류를 통해 두 도시의 유대가 더욱 공고해지고, 더욱 활발한

문화예술교류가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크레모나 몬테베르디음악원

1970년도에 설립된 크레모나 몬테베르디음악원은 크레모나시의 대표적 음악교육기관으로서 전문음악인을 양성하는 요람이 되고 있다.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있으며 매년 국제 마스터클래스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음악학교다.

• 크레모나 안토니로 스트라디바리 국제 바이올린 제작학교

크레모나 출신인 바이올린의 장인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의 맥을 잇는 국립 바이올린 제작학교로 국제적으로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바이올린 등의 현악기 제작 장인을 꿈꾸는 이들이 찾고 있다. 한국 학생들도 매년 20~30명씩 등록하고 있으며 몇몇 한국인은 현악기 장인으로 크레모나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 크레모나 청소년오케스트라 ‘뮤지케’

크레모나를 대표하는 청소년오케스트라로 매년 정기공연, 해외 초청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도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우울해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안식을 불어넣는 등 큰 활동을 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고령-크레모나
청소년 교류 공연
《대가야 환타지아》
(2023.10.24.)

우륵 청소년가야금단(5명)과 대가야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6명)으로 구성된 동서양 현악기 퓨전 공연단 대가야 청소년앙상블과 몬테베르디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교류 및 합동공연을 10월 24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가야 청소년앙상블은 이번 공연을 위해 편곡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을, 몬테베르디 음악원은 전통 클래식 공연을 연주했으며 마지막에는 고령을 대표하는 음악 〈고령아리랑〉을 양국의 연주단이 합동으로 공연하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p>거리 공연 (2023.10.21.,10.22.)</p>	<p>대가야 청소년앙상블은 크레모나 청소년오케스트라와 함께 10월 21일 로마광장, 10월 22일 두오모광장에서 2회의 거리 공연을 하였다. 양 공연단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된 프로그램으로 40여 분간 진행한 이 버스킹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고령아리랑> 합주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오케스트라와 연습을 통해 완벽한 앙상블을 보여주었다.</p>
<p>청소년 교류캠프 (2023.10.22.)</p>	<p>10월 22일 버스킹을 마치고 대가야 청소년앙상블과 크레모나 청소년오케스트라 출연자들은 크레모나를 끼고 도는 포강의 크루즈에서 선상 청소년 교류캠프를 개최하였다. 양국 청소년들은 선상에서 서로 대화하고, 가야금과 바이올린을 바꿔가며 연주하거나 연락처를 주고받는 등 서로 친밀감을 돈독히 하였다. 마지막엔 서로의 이름을 호명하며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면서, 목표했던 양 도시 청소년 음악가들의 상호이해와 교류 증진을 달성하였다.</p>
<p>가야금-바이올린 제작설명회 및 워크숍 (2023.10.25.)</p>	<p>크레모나 국제 바이올린 제작학교와 함께 기획한 가야금-바이올린 제작설명회 및 워크숍이 10월 25일 국제 바이올린 제작학교에서 개최되었다. 바이올린 제작학교 학생들과 일부 관심 있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PPT와 영상을 활용하여 가야금의 역사와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연주도 선보였다. 가야금 제작설명회를 마친 뒤에는 가야금 체험행사를 하였으며, 이후 바이올린 제작학교의 각 부문별 공방을 순회하면서 직접 보고 만지는 등 아주 자세하고 실감 나게 바이올린 제작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p>
<p>볼로냐대학 초청 대가야 앙상블 공연 (2023.10.26.)</p>	<p>주밀라노 한국 총영사관의 후원과 볼로냐대학교의 초청으로 10월 26일 볼로냐대학교 댄스랩홀에서 볼로냐대학교 학생들과 볼로냐 교민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대가야 청소년앙상블의 단독공연으로서 이들의 규모에 맞게 특별히 편곡한 다양한 곡을 연주하였으며, 이러한 독창적인 동서양 악기 소리의 앙상블은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다.</p>

성과

- 고령군과 크레모나시의 문화예술교류 확대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보다 폭넓은 교류 확대 방안 논의
- 2024년 크레모나 청소년오케스트라 축제, 크레모나 서머뮤직페스티벌에 초청 제의를 받음

- 2024년 고령 세계현페스티벌에 참가하겠다는 의향을 전달받음
- 2024년 볼로냐대학 초청공연을 계기로 볼로냐시와 공연예술교류의 발판 마련
- 주밀라노 한국 총영사관과 고령군이 협력하여 이탈리아 북부지역 도시와 더 넓은 교류 방안 논의

참가자 통계

- 《대가야 환타지아》 공연 관람자 250명
- 버스킹 관람자 2,000명
- 가야금-바이올린 제작설명회 및 워크숍 참가자 200명
-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자 40명
- 《대가야 환타지아》볼로냐 공연 200명

후속 교류

- 몬테베르디 음악원 공연단 고령세계현페스티벌 참가 시 합동공연 예정 (2024년)
- 양국 협력단체 관계자 및 양 도시 음악축제 예술감독의 연간 1회 상호교류 방문 추진
- 양 도시 민간 문화예술단체 간 지속가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실질 교류방안 협의 추진(2024년)
- 2024년 크레모나 청소년오케스트라 축제 및 크레모나 서머뮤직페스티벌 초청 시 합동공연 예정



청소년 교류 캠프: 포강 크루즈(2023.10.22.)



몬테베르디 음악원 오케스트라와 연습, 크레모나 상공회의소 강당(2023.10.22.)



가야금-바이올린 제작설명회 및 워크숍, 크레모나 국제 바이올린 제작학교(2023.10.25.)



《대가야환타지아 공연》(2023.10.24.) 바이올린 박물관 아르베디홀



볼로냐대학교 초청공연, 볼로냐대학교 댄스랩홀(2023.10.25.)

(사)세계무술연맹

[충주-호치민시 무술과 문화의 만남]



태권공연

충주-호치민시 무술과 문화의 만남

독특한 동작과 특징을 가진 각국의 전통 무술은 그 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젊은 무술·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통해 양 지역 무술·문화예술인의 국제활동 역량 강화, 시민들에게는 세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양 지역의 우호 협력 및 지속적인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8월(충주시)과 12월(호치민시) 총 2회에 걸쳐 추진된 이 사업은 2022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세계무술연맹이 무예계의 지속가능 발전의 사업모델로 성장, 발전시키려 하는 ‘정부-지자체 협력 무형문화유산 주간’ 플래그십입니다.

47개국 70개의 대표 무술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세계무술연맹의 본부 도시인 충주는 태권 전승의 본거지로서 충주 시립 태권원과 태권단을 운영하고, 각종 무술정책과 사업에 앞장서는 무술의 도시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태권과 씨름을 수련하는 청소년, 지역 대표 케이댄스(K-dance) 팀, 무술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무예 아티스트, 지역방송국이 함께 베트남 호치민시를 일주일간 방문하여 대학교 2곳, 대안학교 1곳, 유명 관광지에서 현지 청소년 및 시민들과 무술 및 문화 공연, 워크숍(쌍방향 강습), 양국 무예·문화 전시·체험 등 일주일간 쌍방향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일으킨 베트남의 한류 열풍이 한국 전통문화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준비했고, 현지에서 보내준 관심과 환호성은 한국과 베트남 문화예술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 열기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총주-호치민시 무술과 문화의 만남
분야	공연, 전시, 체험, 워크숍(택견, 씨름, 캘리그라피, 댄스)
참여 지자체	총주시
사업수행기관	세계무술연맹
교류지역	베트남 호치민시
주요 교류기관	호치민 체육대학교, 호치민 경제금융대학교, 국제 베트남학교(대안학교), 베트남 무술단체

사업수행기관 소개

2002년 10월 2일 대한민국 총주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한 26개국 28개 무예단체가 서명한 ‘세계무술연맹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해 온 세계무술연맹은 2023년 현재 47개국의 70개 무예단체가 소속되어 각국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지속발전 가능목표(SDGs) 달성과 같은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연대하고 세계 곳곳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그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회원단체, 해당 정부 및 지자체,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사회와 손잡고 무예가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가치 정립, 공공문화외교 차원에서 국가 및 세대를 잇는 국제교류 및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이행은 물론 인류와 사회의 평화와 안전, 여가선용 및 스포츠·문화 발전 분야에서도 크게 기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입증했다는 것에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교류지역 소개

호치민시: 동남아시아의 핵심 도시이자 베트남 경제·정치 중심 도시.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역사를 지니며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근래 두 국가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맞이했고 아시아의 사회, 경제, 문화, 관광을 이끄는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1992년 한-베 수교 시작 *2022: 수교 30주년

- 2002년 베트남 전통무술단체(세계보비남연맹) 세계무술연맹 회원 가입

-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세계무술연맹 협력 ‘제1회 호치민시 국제무술축제’ 개최

- 2023년 한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 베트남(2022.11.기준 811억 달러)

- 2023년 9월 충청북도지사와 호치민 시장 면담, 자매결연 추진 합의

- 2023년 10월 문체부장관, 베트남 당 경제위원장(장관급) 면담, 문화관광 및 스포츠 분야의 교류 확대 협의 등

주요 교류기관 소개

• 헤이그 세계 보비남연맹(World Vovinam Federation)

베트남의 국기이자 202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비남(비엠포다오)의 국제연맹이다. 1996년 결성되었고 현재 20개국 이상에 보급되어 있다.

2023년 동남아시아게임(씨게임) 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 호치민 체육대학교(University of Sports HCMC)

1985년 스포츠, 체조학교로 호치민시 투득구에 설립되었다. 학부부터 대학원 과정과 국가 스포츠훈련센터를 운영 중이다. 스포츠과학 등 총 5개 학과가 개설되었고, 11군데의 캠퍼스가 있다. 교수진 중에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동반자 사업(수행기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참가자가 있다.

• 호치민 경제금융대학교(University of Economics & Finance HCMC)

2007년 설립, 35개 전공학부 개설(한국어학부 포함) 및 평생교육원 운영 중. 1,800명 재학, 2021년 세계대학평가기준에서 별 4개를 받은 대학교이다.

한국 20개 대학교와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베트남국제학교(International Vietnam School IVS): 대안학교

기숙형 대안학교로 무술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6~20세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학생들 스스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학습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으며, 학교와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교사와 유대감을 중요시하는 학교이다.

• 한국택견협회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택견의 전승과 세계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 본부는 총주시에 있으며, 매년 초대 택견 인간문화재 신항승 선생을 기리기 위한 송암배 택견대회와 세계 택견인들이 참가하는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한다.

• **대한씨름협회**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씨름의 전승과 세계화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서울에 위치하며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약 20여 개 이상의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대표적이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p>프로그램명 (일정)</p>	<p>충주-호치민시 무술과 문화의 만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2.(화): 기자회견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 - 12.13.(수): 양국 무술·문화 공연-호치민경제금융대학교 - 12.14.(목): 양국 무술·문화 공연 및 쌍방향 워크숍-호치민 체육대학교 - 12.15.(금): 양국 무술·문화 공연-국제 베트남학교(대안학교) - 12.16.(토): 베트남 무술축제 참가-사이공 오페라하우스(호치민시립극장) 양국 무술·문화 전시·체험 부스 운영 7군 - 12.17.(일): 양국 무술·문화 전시·체험 부스 운영 및 공연 7군
<p>전통 무예 택견·씨름, K-댄스, VR 드로잉 공연 (2023.12.11.~12.17.)</p>	<p>지역과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문화인들이 일주일간 전통 무예 택견과 씨름 공연 및 쌍방향 워크숍, 지역 댄스팀, 무예를 예술화하는 작가의 VR 드로잉, 택견 및 씨름 의상 체험, 무예체력 체험 등을 통한 교류로 서로를 알아가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나아가 한-베트남의 우호 증진 및 공공 문화외교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방송국과 협업한 교류활동으로 제작한 영상을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1개 프로그램은 편성 반영했다.</p>

성과

- 2025 베트남 독립 80주년 기념 국제무술축제 개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택견 및 씨름 상호교류(대회 참가, 홍보, 지부 설립) 기반 마련
 - * 2023.11.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베트남 참가
- 상호 지속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3건
- 지역방송국 유튜브 업로드 5회, 프로그램 편성 1회
- 현지 보도 50건 이상, 브로슈어, 워크숍 자료 배부로 사업 인지도 및 편의 제공

- 만족도 조사 결과 프로그램 분야 만족도 95% 이상, 재참여 희망 여부 100% 이상 등

참가자 통계

- 한국 측 참가: 총 46명(택견 8, 씨름 21, 댄스 5, 작가 1, 지역방송국 2, 방송국 2, 기자 1, 주관 6)
- 베트남 측 참가자 500명(무술인, 대학생)
- 공연 관람자 2,000명
- 전시 및 체험 부스 관람체험자 2,000명
- 워크숍 참가자 300명
- 호치민시 문화체육국 관계자 20명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명

후속 교류

- 2024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등재무예포럼 및 축제, 국제학술세미나 등 참가 예정
- 2024 양국 무예단체(택견, 씨름, 보비남 등) 상호 참가 예정
- 2025 베트남 독립 80주년 기념 국제무술축제 개최 예정 등



업무협약 체결(호치민 경제금융대학교)



대북 공연



씨름 공연(2023.11.14. 호치민시 체육대학교)



의상 체험 및 부스 운영 현장



워크숍 후 단체사진

풍물패청음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함안·몽골 청년
민속예술인의 국제교류 사업]

전통예술은 지역의 역사, 지리, 사회환경, 관습, 음식 등의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로컬문화의 대표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다. 함안과 몽골의 청년 전통예술인이 함께 교류하고 미래 세대(아동·청소년)를 위한 공동작품을 창작하는 활동 속에서 지역 전통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이를 위한 사전 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몽골 협력단체 공연작품 관람(2023.9.26, Tsagaan Lavai Entertainment Center)

사업수행기관 소개

풍물패청음은 2005년 창단되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감각의 창작 활동과 지역의 우수한 역사성이 반영된 축제, 교육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 참여와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2016년 경상남도 전문예술단체, 2021년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2023년 함안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되었다.

교류지역 소개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몽골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이다. 울란바토르시 항울구는 2011년 함안과 자매결연을 맺은 후 문화축제와 농업 재배기술 등을 교류하며 우호와 협력 증진에 노력해 왔으나,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며 두 지역 간의 교류 기회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양국 청년 예술인의 전통문화 교류사업을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교류의 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경제, 농업 등 타 분야에까지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1) Tsagaan Lavai Entertainment Center(전문예술공연극장)

현악, 관악, 타악, 무용 등 여러 분야의 전문예술인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몽골의 민속예술을 소재로 관광 상설공연을 하는 단체이다. 전문 소극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고 민간예술단체로 자립하여 창작 및 공연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 Wind of nomad(전문예술가협회)

몽골 유명 예술인들이 주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국립·도립·시립예술단 소속 예술단원 사이의 네트워킹이 원활한 단체이다. 정기공연보다는 프로젝트 성격의 자유로운 공연, 또는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마두금, 하모니카, 가야금, 허밍 등 다양한 분야의 전통예술인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3) Монголын ХҮҮхдийн Ордон(몽골 어린이궁전)

1958년에 설립된 국립 교육기관으로 노래, 미술, 악기, 무용 등 예술에

특화된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성장을 돕고 있다. 몽골에서 가장 큰 예술 교육기관으로서 공연장, 교실, 연습실, 악기실 등의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어린이날과 명절 등에는 공연과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어린이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업계획 발전 성과

- 국제교류 사업의 목적 명확하게 제시 필요
- 사업을 위한 현지의 실질적인 파트너 부재



- 자문 과정을 통해 청년 예술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예술 교류사업 계획안을 수립함
- 울란바토르 방문 및 현지 예술인과의 미팅을 통해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사전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부내용

프로그램명	함안·몽골 청년 전통예술인 교류 워크숍 및 공연 준비 사업
몽골 예술단체 (협회)와의 협약 및 네트워크 구축 (9.24.~9.28.)	향후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하여 예술단체(협회) 2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4개의 유관기관 및 예술인과 만나 사업을 홍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 ※ 업무협약 체결 > Tsagaan Lavai Entertainment Center(전문예술공연극장) > Wind of nomad(전문예술가협회)

2023년 추진 계획

사업명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함안·몽골 청년 민속예술인의 국제교류 사업
분야	공연(공동창작을 통한 브랜드 작품), 워크숍(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
참여 지자체	함안군
사업수행기관	풍물패청음
교류지역	몽골 울란바토르

주요 교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sagaan Lavai Entertainment Center(전문예술공연극장) - Wind of nomad(전문예술가협회) - Монголын ХҮҮхдийн Ордон(몽골 어린이궁전)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내용: 함안-울라바토르 청년 민속예술인 간의 교류를 통한 공연 및 워크숍 • 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민속예술 워크숍 진행 2) 양국 예술인의 창작 협의체 구성 및 워크숍 진행 3) 양국 예술인이 참여하는 쇼케이스 진행



관계자 미팅 및 사업 홍보(2023.9.26.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관계자 미팅 및 사업 홍보(2023.9.25.Wind of nomad)



어린이공연 시설 투어 및 프로그램 소개(2023.9.26.몽골 어린이공연)



관계자 미팅 및 창작 작품 콘서트 논의(2023.9.26.Tsagaan Lavai Entertainment Center)



현지 언론_우글리미서닝(2023.10.16.)



현지 언론_조니메데(2023.10.16.)

국제문화교류 사업 리뷰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엿본 지난 6년

2023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 후기

이세은 | 독립 기자

지역‘다움’

올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객원 에디터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기사를 한 가지 꼽아본다면 9월 뉴스레터에 실린 ‘2023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이다. 8월 말 늦여름, 사업에 참여한 단체 중 대표로 두 팀-남이섬교육문화그룹 권진욱 PD, 남해문화원 김미숙 사무국장-을 만나 본 사업의 방향과 의의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자연의 활력이 생동하는 남이섬과 아기자기한 유럽 마을을 연상시키는 남해섬. 대한민국의 작은 지역에서 펼쳐질 국제문화교류의 그림에 대해 듣고 있자니, ‘고유함’이 지닌 멋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권진욱 PD는 인터뷰 중 “아름다운 남이섬과 자연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개최함으로써 남이섬이 국제 관광지 및 교류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컬문화를 연구하는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로컬의 본질은 문화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그곳만의 문화가 있는가, 즉 독립적인 콘텐츠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다움’이죠. ‘한국다움’, ‘도시다움’, ‘동네다움’, ‘나다움’이 있어야 단단한 로컬인 거예요.”

2018년 시작된 진흥원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우리 한국문화의 근거가 되는 여러 지역문화의 생김새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다. 화려한 도심 문화에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한가득 발견할 수 있다. 본 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국제교류의 다리가 된다. 글로벌 시대에 지역문화의 교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나아가 소규모 지역이 자생하는 데 문화예술이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운 날의 열정적 현장

지난 12월 21일, ‘2023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진흥원의 정길화 원장과 본 사업을 담당한 교류기반팀, 그리고 올해 사업에 참여한 일곱 개의 단체와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 내용과 성과를 열정적으로 나누는 자리였다. 남이섬에서 그림을 매개로 교류한 한국과 인도 작가들, 밀양시민예술단과 아프리카 세네갈에 위치한 대표 무용기관 에콜 드 사블르 간의 전통춤 교류, 진주 실크와 인도네시아 바틱의 만남, 고령의 문화유산 가야금과 바이올린의 도시 크레모나의 현악기가 만나 이룬 합주, 한국과 베트남의 젊은 무술·문화예술인들이 함께한 무술과 문화의 만남, 그리고 기획지원 우수사업인 풍물패창음의 함안·몽골 청년 민속예술인 국제교류 사업까지, 저마다 다른 지역색을 살려 이루어낸 문화교류 현장을 소개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열띤 논의에서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돋보였다. 지원 단체들은 이번 사업의 큰 수확으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을 꼽았다. 본 사업은 지역문화의 국외 진출에 앞서,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먼저 손잡도록 독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은, 자신들의 지역문화가 지역 정체성과 문화교류에 주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든든한 동반자의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

또한 참여 단체들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의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지역문화 콘텐츠의 지속성을 꾀했다. 이 지속성은 ‘네트워크’, 즉 관계의 힘에서 비롯된다. 인적 네트워크는 모든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자 목적이다. 남이섬교육문화그룹 권진욱 PD는 “본 사업으로 국내외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교류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네트워크’다. 이 과정에서 쌓은 끈끈한 유대가 추후 여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 풍물패청음 예술감독 권정현 역시 “몽골 예술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함안·몽골 전통예술인의 합동 공연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교류에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이러한 소통 경험이 우리 지역문화가 더 널리 나아가는 데 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이날은 본 사업의 종료를 알리는 아쉬운 자리이기도 했다. 사업은 올해로서 끝이 나지만 ‘지역문화’와 ‘국제교류’의 키워드가 영영 멈추는 것은 아니다. 정길화 원장은 “작은 규모였지만 우리 진흥원의 자부심을 일깨워준 사업 중 하나였다”라면서 “사업은 종료됐지만 ‘일몰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다. 해가 지면 다시 떠오르는 법이다. 지역문화가 국제교류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희망 가득 끝인사를 전했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지난 6년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기초지자체 관할의 지역문화에 집중했다. 예산 확보와 복잡한 행정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고, 문화전문가들을 매칭하여 전문적인 문화교류 콘텐츠의 구색을 갖추도록 했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진흥원의 존재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준 사업”이라며 “사업은 끝났지만 사업을 통해 맺어진 다자간의 네트워크는 현재진행형이니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선정된 사업 중에서 전통문화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 대중문화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유의 색을 지닌 이러한 지역문화는 더욱 촘촘하게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수교행사와 중앙정부 등 큰 단위로 움직였던 국제문화교류가 점차 지역·민간 주도로도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본 사업이 남긴 발자국은 큰 의미를 갖는다. 사업을 총괄한 교류기반팀 박지현 팀장은 “기초지자체의 지역문화가 갖는 고유함과 깊이에 우리 팀 또한 많은 감동을 받았다. 큰 규모의 사업 운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감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2018년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웨이하이	시각예술, 융복합	전시, 공연	영월 등방채목 아트페스타	‘18년 우수사업 선정
경기 이천	이천도자기 명장회	프랑스 파리	도자	전시, 제작 시연	2018 세계문화유산 장인박람회 이천도자기명장 도자 제작 시연	
강원 원주	원주영상 미디어센터	탄자니아 잔지바르	전통음악, 미디어	워크숍, 페스티벌	사운드와 영상을 매개로 한 원주-잔지바르 콜라보 프로젝트	
경기 안산	안산문화재단	중국 옌타이	미디어, 융복합 무용극	전시, 공연	단원 김홍도, 길을 떠나다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이탈리아 피렌체, 만토바, 노비리구레, 로마, 베네치아	마당창극	공연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에서 피어난 전주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	
충북 괴산	문화공간 그루	프랑스 몽톨리외	한지, 사물놀이, 활자, 종이 제작	전시, 공연, 워크숍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	
충북 청주	청주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호주 시드니	식문화, 공예	전시, 워크숍	〈선비의 식탁〉 국제교류전	

2019년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광명	광명문화재단	독일 라이프치히	업사이클	전시, 워크숍, 세미나	국제 업사이클 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행사	‘19년 우수사업 선정
충남 서천	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토르	전통음악, 무용	전시, 공연, 워크숍	NOMAD, 예술로 만나다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웨이하이	시각예술	전시, 레지던시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18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경기 이천	이천나드리	프랑스 파리	도자	전시, 워크숍, 제작 시연	도자기 제작 시연 2탄 파리 루브르 이천 도자기 명장, 세계를 빛다	
경남 창원	발해 1300호 기념사업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각예술, 국악	전시, 공연	선린우호 해동성국 발해가 있다	
경북 고령	고령문화원	이탈리아 크레모나, 크레마	마당놀이, 가야금	공연, 전시, 세미나	대가야의 소리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 해외공연	
전남 순천	두루미 과학예술센터	프랑스 낭트	공예, 융복합 무용극, 식문화	전시, 공연, 워크숍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기념, 순천만 생태 기반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확산 및 도시재생 기반 문화 도시 네트워크 협력·교류	
충남 공주	웅진문화회	베트남 후에	백제기악	공연	세계문화유산 우호협력도시 전통문화 교류 공연	
충북 옥천	옥천문화원	일본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시문학	포럼, 작문대회	제9회 일본 지용제	
충북 충주	택견보존회	폴란드 그단스크	택견, 사물놀이	공연, 워크숍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 & 사물놀이 한-폴란드 국제 문화예술 교류	

2020년 추진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김포	김포문화재단	미국 글렌데일	현대미술	전시, 워크숍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展	'20년 우수사업 선정
전남 해남	시화풍정 담소	인도 산티니케튼	해남굿, 시문학	공연, 워크숍, 시 낭송	평화의 시마을 해남 (Shanti Poemtopia Haenam)	
경기 광명	광명문화재단	이탈리아 로마	업사이클	전시, 워크숍, 세미나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워크	'19년 우수사업 선정
충남 서천	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토르	전통음악, 무용	전시, 공연, 워크숍	서천, 몽골 문화예술창작교류 시즌2 "NOMAD, 예술로 만나다"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경기 군포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러시아 우수리스크	연극	공연	한·러 수교 30주년 러시아 우수리스크 시립극단 창작연극 합동 영상공연	
경남 고성	고성농요보존회	러시아 모스크바	고성농요	공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모스크바 초청 고성농요 "차이콥스키 음악원" 영상공연	
경남 밀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중국 한단	독립운동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 떠나는 아리랑 여행	
전남 목포	목포문화재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도민요	공연, 세미나	한·러 문화 실크로드 (Silkroad)	

2020년 기획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화성	화성시문화재단	스페인 타레가	거리 퍼레이드	공연, 워크숍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20년 우수사업 선정
충북 제천	제천문화재단	중국 장수	한방	전시, 워크숍, 영상 공유회	한방(약초) 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	
경기 수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독일 프라이부르크	판소리	공연, 워크숍	수원의 <정조가>, 900년 역사의 음악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울려 퍼지다	
경기 파주	파주시 시립예술단	미국 글렌데일	합창 음악극	공연	LA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10주년 기념 문화축제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단	일본 마이즈루	전통무용	공연, 워크숍	포항시·마이즈루시 문화교류 사업	

2021년 추진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김포	김포문화재단	미국 글렌데일	현대미술	전시, 워크숍	[김포시-글렌데일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Borders: Visible/ Invisible, 경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0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전남 해남	시화풍정 담소	인도 산티니케톤	크로스 오버	공연, 영상제작, 워크숍	평화의 시마을 해남II (Shanti Poemtopia Haenam II)	
경기 화성	화성시문화재단	프랑스 몽펠리에	창작무용, 공예	공연, 워크숍	효(孝)의 춤	‘20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및 ‘21년 우수사업 선정
강원 영월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	일본 히가시카와	사진	전시	2021 영월- 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강원 정선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카자흐스탄 알마티	융복합	공연, 전시, 체험	정선군-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문화예술교류 “A-Culture Road”	
전북 전주	한국전통문화 전당	몽골 울란바토르, 스페인 바라칼도· 사라고사	전통놀이	개발연구, 특강, 워크숍, 론편연스	국제 유사 전통놀이 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	
전남 담양	담양군문화재단	중국 광저우	설치미술	전시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21년 우수사업 선정

2021년 기획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북 영주	영주문화관광 재단	베트남 하노이	전통공연	공연, 워크숍	영주-하노이 국제문화교류: 선비의 삶	‘21년 우수사업 선정
강원 인제	인제군문화재단	중국 항저우	서예, 산수화	전시, 학술발표	인제-항주 서화예술교류전 ‘서여초화매정 (書如初畫梅亭)’	
강원 강릉	강릉문화재단	러시아 이르쿠츠크	문학, 음악, 창작극	공연, 워크숍	강릉-이르쿠츠크 두 도시 이야기	
경남 진주	진주문화예술 재단	미국 맥알렌	전통 등불	공연, 전시	희망의 등, ‘맥알렌’ 가다	
전남 곡성	극단 마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극	공연, 워크숍	이야기 밥상에서 깊어가는 심청전 - 곡성을 넘어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2022년 추진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남 진주시	진주문화관광 재단	인도네시아	공예, 패션	워크숍, 패션쇼	인도네시아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22년 우수사업 선정
경북 예천군	예천국제 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	캐나다 토론토	영화	국제영화제, 영화축제	2022년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 영화제	
전남 담양군	담양군문화 재단	중국 광저우	시각, 설치미술	전시, 워크숍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충남 보령시	(사)문화자원 진흥원	베트남 푸토성 비엠허	시각, 캘리 그래피	전시, 워크숍, 플랫폼 구축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캘리그래피) 문화 확산	
충북 청주시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인트호벤, 로테르담	융복합	공연, 워크숍	치유의 연회 (Healing Performance)	
충북 충주시	(사)세계무술 연맹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무예	공연, 워크숍, 전시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지역 무형문화유산 교류	‘22년 우수사업 선정

2022년 기획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강원 춘천시	유니마 코리아	벨기에 브뤼셀, 체코 플젠 등	연극	인형극	JEM Festival in Chuncheon puppetry week	
전북 순창군	극단 녹두	미국 LA	창작 뮤지컬	공연	오버 더 레인보우	‘22년 우수사업 선정
충남 천안시	SWEEP 엔터테인먼트	미국 오레곤주 비버튼	공연	공연, 워크숍	국제예술교류 한걸음	



지역, 잇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3

발행일 2024년 1월
발행인 정길화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소 0392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203호
연락처 02-3153-1764
홈페이지 kofice.or.kr

기획 KOFICE 교류기반팀 박지현, 심영은
디자인 PaTI 멧짓공작소

© 2024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본 도서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9 772982 635006 02
ISSN 2982-6357

